

#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적자 책임 분쟁 장기화

### 市 “철거 비용 200억 업체 부담해야” 대한상사중재원 3차 심리 한달 연기 에코트랜스 보상수익 등 1367억 요구 이르면 내달 중 최종 판단 나올 듯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 ‘스카이큐브’ 적자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만성적인 적자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주장에 맞서 순천시는 스카이큐브를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21일로 예정됐던 3차 심리를 11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순천시가 스카이 큐브 시설 철거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보상 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3차 심리가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단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국가정원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의 적자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카이큐브 정원역.

대한상사중재원은 에코트랜스의 보상 요구와 순천시의 반대 신청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한 달 뒤로 연기했다. 통상 3차 심리 이후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월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5월 1차 심리에 이어 8월 2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현장 검증을 했다.

순천시는 중재 심판 결과를 본 뒤 스카이 큐브 철거 문제를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 부진의 모든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에코트랜스가 중재 심판 이후 스카이큐브 운영에서 손을 뗐을 경우 철거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코트랜스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 이후에 철거 여부를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철거 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재심판의 핵심은 순천시가 의무를 이행했느냐의 문제로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 철거 문제도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전라남도 소상공인 희망페스티벌  
순천 조은프라자 연향1주차장서  
26일...제로페이 홍보·가수 공연

‘2019 소상공인 희망페스티벌’이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조은프라자 앞 연향1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17년부터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는 화합한마당으로 전라남도 14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순천시 상인회, 업종별 직능단체가 참여한다. 공식행사는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남 도지사과 순천시시장의 축사, 릴레이 축하말씀, 우수소상공인 표창, 제로페이·순천사랑상품권 홍보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가수 한혜진, 박구윤, 김소유(미스트롯) 등이 참여하는 축하행사가 흥겨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제로페이·순천사랑상품권 홍보버스 운영과 전남도 특산품과 먹거리 판매, 광고대상 모형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제21회 순천만갈대제가 25일부터 순천만습지와 화포해변, 외온해변에서 열린다. 순천만습지 갈대밭 관 광객들.

## ‘갯벌, 갈대에 흐르다’...25~27일 순천만갈대제

순천만습지·와온·화포마을 각종 행사  
‘제21회 순천만갈대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순천만습지와 화포해변, 외온해변에서 열린다. ‘갯벌·갈대에 흐르다’를 주제로 갖는 갈대제는 대한민국 친환경 대표축제로 만들기 하고 행사 기간 중 소외되지 않는 주민의 적극 참여, 친환경, 일회용품 사용제한, NO플라스틱 등 생태환경 보전 4대 원칙을 적용,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탐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축제로 인한 생태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만습지에서만 개최하던 축제행사를 순천만을 둘러싸고 있는 해룡면 와온마을과 별량면 화포마을 일원으로 분산했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의회는 지역사회단체들과 ‘순천만갈대축제학교’를 개

설, 갈대제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주 무대인 도사동 순천만습지 자연생태관 잔디광장에서는 먹거리 장터가 개설되고 시민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또 와온과 화포마을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로컬 푸드가 판매되며 주민들이 기뻐하는 공연도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시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고 부대행사로 순천만 흑두루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학춤(순천만 흑두루미 춤, 울산학춤, 동래학춤, 양산학춤, 통도사 학춤) 공연이 펼쳐지고 갈대제 20년을 되돌아보는 순천포럼도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갈대제는 탐사르스지도시 순천과 2020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축제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국내외 평화 전문가 참석 ‘2019 순천 평화포럼’

24~25일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  
순천시는 24~25일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2019 순천 평화포럼을 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순천 평화포럼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에티오피아 대사, 라종전 전 우석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평화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서대문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일본의 식민 통치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일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상태에서 참석해 평화에 대한 의미

를 더할 예정이다. 24일 열리는 공식 행사는 송재훈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허석 순천시장의 환영사,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토야마 전 총리가 기조발제를 하고 2개의 학술토론 세션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럼을 발판으로 2020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한·중·일 평화 포럼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다보스포럼과 같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순천에서 힐링하면서 세계 평화 아젠다를 논의하는 국제 상설포럼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20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 자전거축제

## 11월 3일(일) 영산강 일원

**장 소**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

**종 목** 자전거대행진

**참가비** 전 종목 무료

**접 수** 062-376-3112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1.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 → 나주대교 → 빛가람대교 → 영산교 → 영산대교(유채광장/반환) → 영산교 → 빛가람대교 → 나주대교 → 승촌보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2시 40분까지(3시간)
2.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2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반환)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1시 10분까지(1시간 30분)
3. **신청**: 사전 전화접수
4. **참가자준비물**: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5. **자전거대행진 당일안내** (11월 3일)  
1) 참가자접결시간: 오전 9시까지(출발선 대기)  
2) 장미점검(배변 등 부착물 체크): 오전 8시~9시  
3) 출발시각: 오전 9시 40분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번호를 부착한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응급조치 및 보험 보상규정 한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개인 지병, 혈압, 당뇨, 과로, 심장질환 등)를 고려하여 참가신청 및 개별 상해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 ·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 | 주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